



지난 31일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림마을 김승일(65·왼쪽 세번째)씨의 한옥에서 투숙객들이 족로차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숙박과 농사짓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 민박이 인기를 끄는 등 전남지역에 한옥 열풍이 불고 있다. /담양=니맘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 '한옥 르네상스'

### '행복마을' 100곳 웰빙·소득 '일석이조' 수 십억 수입에 인구유입·땅값 상승도

한옥은 더 이상 문화재가 아니다. 자연속 웰빙 생활을 하면서, 민박을 통해 돈도 벌 수 있는 한옥이 전남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단순한 거주 개념에서 벗어나 한 마을에 여러 채의 한옥을 지어 도시민에게 빌려주고, 농특산물 판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한옥을 통해 도·농간 교류가 활발해져 빈집만 가득했던 시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옥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행복마을' 100곳 중 민박에 참여하고 있는 45곳이 지난해 14억7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행복마을은 한 마을의 집 12채 이상을 한옥으로 개조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민박이나 특산물 판매 등을

결할 수도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목포를 제외한 전남지역 2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738개 동이 완공됐고, 694개 동이 건립 중이다. 행복마을은 현지 주민들이나 외국인 이 짝을 지어 한 마을에 한옥 단지를 조성한 뒤 거주지로 쓰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민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전남도가 보조금 4000만원과 용자금 3000만원, 마을 공공기반시설 3억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마을의 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담양 무림마을 등 민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 행복마을 45곳은 숙박비(6억3000여만원)와 농특산물 판매(7억2000여만원), 체험프로그램(1억여원)을 통해 수입을 올렸다. 단순히 한옥만 빌려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콩, 고구마, 꿀, 된장, 양파 등 마을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고기잡이·나물 캐기 등 농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체험프로그램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인구 유입과 땅값 상승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구례 상사마을(34명) ▲장흥 신덕마을(31명) ▲곡성 금의마을(30명) ▲무안 약실마을(28명) ▲영암 산정마을(35명) ▲함평 상모마을(20명) 등 635명이 새롭게 전남으로 이사를 왔다. 마을 주변 토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648명의 외국인인 전남 한옥에서 한국의 맛을 만끽했다. 또 한옥을 많이 짓다 보니 지역 내 관련 산업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목재, 한식장호, 활도보들, 기와 등 관련 전문 생산업체 57곳이 창업중이며 전남도에 지정된 전문 시공업체만 20여 곳이다. 전남 지역에서 한옥 열풍이 불면서 활동분체를 생산하는 클래식스 등 타 시도 업체 2곳도 최근 광양과 영암

으로 이전했고, (주)헤브론이 신안 증도에 176억원을 투자해 한옥숙박타운을 짓기로 했다. 한옥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목조건축전문학교가 영암군 삼호읍 옛 장전초교에서 703명의 한옥건축인력을 양성했고, 전남도립대학은 한옥문화산업과를 신설해 졸업생 26명이 지역 한옥시공업체에 취업했다. 행복마을 이외에도 전남에 10여채 이상 모여 있는 한옥은 1만8900여채에 달한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100개소의 행복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 프로젝트 166개... 구호만 요란한 '남해안 선벨트'

# 선택과 집중 급하다

### 정부지원 갈팡질팡... 세제·규제완화도 필요

실질적인 지원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을 앞두고 남해안 선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돈이 되는 사업을 골라 우선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해안 선벨트는 전남과 경남, 부산 해안선에 연결한 35개 시·군·구(1만2753km)에 걸쳐 남해안을 동북아 경제 물류와 해양 중심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추정 사업비만 24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남에는 여수 사도와 남도 생태섬, 고흥 우주해양특구 67개 사업이 반영,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고 지원은 시범사업에 181억원을 준 것 뿐이다. 계획과 구호만 난무했지 현실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등 고작 3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진도항 배후지(예산 4705억원) ▲고흥 우주랜드(290억원) ▲여수 상하화도 콧섬(32억원) 등 전국 7건을 남해안 선벨트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해안 선벨트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전혀 안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남해안 선벨트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업 선정 당시, 프로젝트 수가 한 때 300~500개에 달할 정도로 혼란을 겪어 최종 166개를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산을 쥐야 할 곳이 많다 보니, 정부가 어디를 먼저 지원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남해안 선벨트 오세진 지원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과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31일 여수 엠호텔에서 3개 시·군·구청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권 공동발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연장 ▲남해안 선벨트 사업 활성화 ▲목포~부산간 KTX 조기 건설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해상국립공원지역내 숙박투자 제도 개선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기준 개선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개선 ▲연안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불법 자금용 피해 국가가 일괄 소송

### 정부 대책 발표... 범정이지자 초과분 국고 환수

정부는 불법 자금용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자금용업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제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자금용 피해는 개인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

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국가가 환수를 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완료하고, 여기에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 직원이 근무하도록 했다. 이어 서민이 불법 자금용에 의존하지 않도록 소득·부채 기준 등이 지원요건에 미달해도 상한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한의원 개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송일중·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우암한방병원과 장흥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을 마치고 동강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개원식에 몰입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던 분들께 우선 지원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동강한의원 원장 한의사 이준성

전남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189-7 전 화: 061-834-5323

###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2년 6월 30일 까지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b>VIP 정회원 - 모집인원: 9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회금액: 3억 3,000만원</li><li>회원특전<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링 보장(1월 1회), 골프벨 개장시 할인 혜택</li><li>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li>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일 1회)</li></ul></li></ul>	<b>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5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회금액: 2억원</li><li>회원특전<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링 보장, 골프벨 개장시 할인 혜택</li><li>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li>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li></ul></li></ul>
<b>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10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회금액: 1억 5,000만원</li><li>회원특전<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링 보장, 골프벨 개장시 할인 혜택</li><li>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li>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li></ul></li></ul>	<b>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30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회금액: 1억 1,000만원</li><li>회원특전<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링 보장, 골프벨 개장시 할인 혜택</li><li>선택: C형, D형 중 선택(1)<ul style="list-style-type: none"><li>C형: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45회 사용, 1일 1회)</li><li>D형: 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ul></li></ul></li></ul>
<b>중증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47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회금액: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li><li>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li></ul>	

※계약시: 정회원인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모든 특전  
※VIP·하트·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공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www.happynesscc.com